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0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묵상집 1년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 가격: \$60.00 *신청- 도서관 *문의- 조현숙 권사

• 남플 3040 단합모임

오늘 남플 청장년 그룹이 함께 하는 ‘남플 3040’ 단합모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1시부터 ‘아아 커피’와 스낵이 제공되고 2:30부터 유스 그룹에서 자녀를 돌봅니다.
*일시- 10/8(주) 2:30분 *내용- Praising/ Getting to Know/ Playing/ Eating

• 남플 늘 푸른 학교

10/18(수) 오전 10시, ‘남플 늘 푸른 학교’를 개강합니다. 늘 푸른 학교는 매주 수요일, 남플의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영적 육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고 자기 개발을 이루도록 지원함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교회학교 가을축제

교회학교에서는 10/28(토) 4:30-7:30까지 가을 축제(Fall Festival)를 실시합니다. 이번 축제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한 교회학교 Fall Festival을 위한 교회학교 바자회가 10월 22일에 친교실에서 커피와 음료와 빙수를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윤성민 전도사

• 연합 성가대 연습 안내

추수 감사절 찬양/연합 찬양제/성탄절 찬양 연습이 11/5(주일)부터 매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주님오신 기쁜 성탄절을 찬양으로 준비하는 귀한 사역에 성가대원이 아닌 분들도 초대합니다.
*매주일 7시 연습/ 6시 저녁식사

• 교우 동정

[장례] 김미자 집사님 남편 Terry Kyle의 추모예배가 10/13일(금)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Kraeer Funeral Home :200 West Copans Rd. Pompano Bch FL 33064)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E.M.(English & Multicultural)

1. First Saturday of every month, E.M. helps out the Food Pantry Ministry and enjoy Christian fellowship. Next one is scheduled on 10/7.
2. Three Sundays in October (8, 15, & 22), we will have Spiritual Gift Seminars during 2:45 pm - 3:45 pm in our fellowship hall.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30 p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2부 플룻- 노지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오행복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김동규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은혜 김학섭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 교회관리/ 전정환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21,025.00

일반헌금 \$12,915.00	심일조: \$9,570.00 주 일: \$1,005.00	감 사: \$770.00 기 타: \$1,570.00
건축헌금 \$530.00	약 정: \$30.00	
선교헌금 \$7,580.00	속 화: \$180.00	중남미: \$7,4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2권 43호
2023년 10월 08일



2023년도 표어

“새 비전,
새 시대,
새 역사“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아홉번째주일 >예배순서

- | | |
|--------------------------------|----------------------------|
| 1부(8:00am) | 2부(10:30am) |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Presider |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39장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57번 | 많은 사람들 |
| ▲ 영광송 Gloria / 5장 | 내게 강 같은 평화 |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 십자가, 많은 이들 말하고 |
| 찬송 Hymn / 284장 (통206) | 다같이 |
| 기도 Prayer / 최혜영 권사 |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A life lived in all sins) |
| - 영화롭도다 - | 기도 Prayer/ 박인숙 장로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 ▲ 봉헌 Offering / | - 누군가 기도하네 - |
| | 영상 광고 |
| |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 예레미야애가(Lam) 3:19-23

< 아침마다 새로우니... >

They are new every morning!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 파송찬송 Closing Hymn/ 302장 (통408)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3년 10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0월 8일	1부	소망교구	담당자	최혜영권사	온유교구
	2부			박인숙장로	
다음주 10월 15일	1부	소망교구	담당자	정미숙권사	소망교구
	2부			김창림장로	

금주의 말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애(Lam)3:22
*인용성구/ 시(Ps)102:6,7,13, 시(Ps)3:3,
민(Num)6:25-27

11차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작정 새벽부흥성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1:6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작정 새벽부흥성회 참여순서

2023 특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시어
아래 순서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로비에 비치된 '오늘의 만나'를 가지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2. 강단으로 나와 성전대 위에 놓여있는 붉은 색종이를 취해 강단 위의 십자가에 부착합니다.
3. 각자 준비한 전자 초에 불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용히 기도합니다.
4. 설교 후, 진행될 안수기도와 치유기도에 성령의 지도에 따라 참여합니다.
5. 퇴장할 때 '출석표'에 당일 출석상황과 전날 '오늘의 만나' 읽기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합니다.

*특별한 사정(지병, 출장, 라주거주)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실황'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남쪽 새벽예배 단톡방'이나 예배명상
하단의 Comment에 '이름과 아멘'을 남기시면 됩니다.

*이번 성회의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홍숙 사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12부 예배 참석으로 대신

금주 예찬 섬김

금주 (10월 8일)	다음주 (10월 15일)
윤창우집사	김은혜, 최명달집사
범사감사	(민음)생일감사
온유교구	소망교구

언제가 한 일간지에서 한국을 포함, 세계 10개국 국민의 행복지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평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측구와 삼바의 나라 브라질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복한 인구가 90%를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나는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7.1%로 10개국 중 제일 적은 수치였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빌 게이츠를 꼽은 나라는 한국이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의 적고 많은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역설을 봅니다. 성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때는 예배를 통해 영적 평안이 임할 때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9:31).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말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접속사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 곧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사울이 대제사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 한 후, 즉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과 그로인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써 나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는 당시로써는 믿기 어려운 대단한 사건이어서 제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떨려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 가고자 하니나 하더라” (행9:21). 이처럼 사울의 회심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두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그의 회심으로 교회에 가해지던 핍박이 일단 멈추면서 성도들이 숨을 고를 수 있었고, 다음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확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행9:20). 이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인생을 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완전히 바뀐 증거입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건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로 충만했고 주님만이 그가 관심하는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의 보장하고 그를 보호했던 바리새파와의 모든 줄을 끊고 거친 광야에 서는 것과 같았고, 살해의 위협과 박해에 완전히 노출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울 동안 눈이 멀어 극한 경험 이후,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분석학자, Karl Menningersms 우리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두려워하는가? 이는 그가 너무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두려움을 끼고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지만, 육신에 처해서 자기를 사랑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복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을 때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 즉시로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남으로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그 '즉시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그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1속 (평양과기대-고동훈)	충성2속 (도미니카- 피터정)	충성3속 (아틀란타- 다니엘양)
민음1속 (중국- 장은광)	민음2속 (쿠바- 김기현)	민음3속 (카자스탄- 양재성)
민음4속 (이라크- 손기주)	온유1속 (니카라과- 김향자)	온유2속 (말레이시아-김시은)
온유3속 (아리조나- 이영호)	소망1속 (니카라과- 김규현)	소망2속 (볼리비아- 김영모)
소망3속 (키르기스스탄-임다윗)	사랑1속 (태국- 이우현)	사랑2속 (터키- 송정렬)
은혜1속 (하이티2- 정 광)	은혜2속 (하이티- 김승돈)	